

## 이벤트와 장소 Wrapping the place

오섭훈 /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by Oh Seom-Hoon

### 95. 11. 23 / 다른 시각

모더니즘이나 소위 그 이후의 경향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들은 연속적인 사고의 결과가 아니다. 서로 다른 출발의 결과다. 근대성(Modernity)에서 나타나는 속성들은 합리성, 기능 등 문제가 많다.

그러나 그 이후의 일련의 경향에서는 합리성 또는 기능 문제가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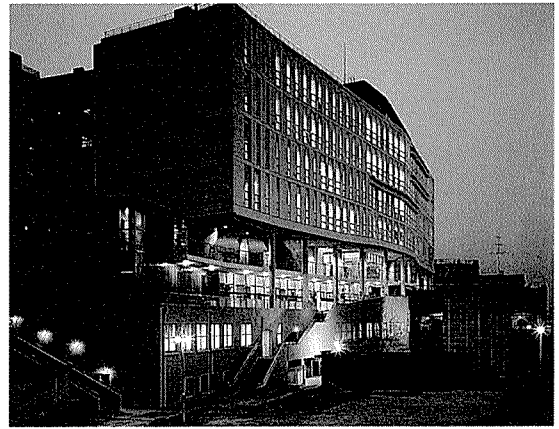
즉 복잡성(Complexity) 등은 다른 계열이다. 즉 가치기준의 중요도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이다.

공간의 구체화는 안보이는 힘의 콘텍스트나 이벤트로서 어떻게 구체화(material form)되느냐의 시각에 관심이 간다.

21C를 바라보면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분명 변하고 있고, 여러 현상들이 혼재되어서 나타나고 그 중 주현상은 무엇일까.

### 96. 3. 25 / 성신여대 2부관

많은 것이 프로그램화 되길 바란다. 관련된 모든 것이 비중이 큰 것은 큰대로, 적은 것은 적은대로 다 나타나기를 바란다. 캠퍼스 몰의 특성, 레벨차, 사회교육원의 특성, 시내중심에 있는 대학으로서 사회와의 관계, 레벨 연결문제, 내외부의 관계, 복잡성(complexity) 이렇게 모여든 프로그램들이 아주 유니크하게, 독특하게 조직되기를 원한다. 동선이 반드시 짧



성신여대 2부관

은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스피디한 이동, 느릿한 이동.

나는 이 프로그램들의 조직에서 아이디어가 구해지길 바란다. 강한 한두 원칙에 의해서 조직되길 바란다. 소위 강한통합(intensive coherence)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객관적으로 있는 모든 것이 프로그램화 되어 강하게 통합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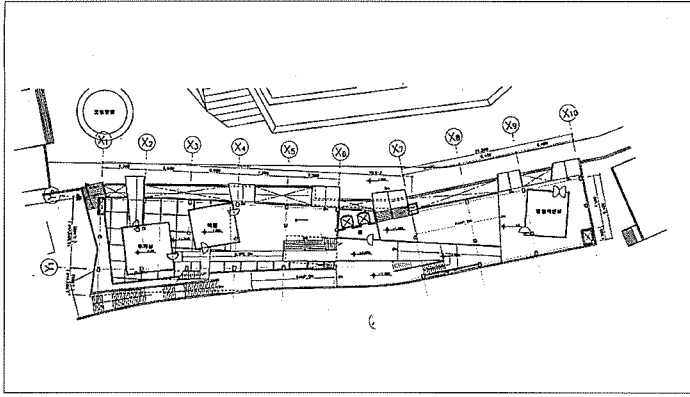
### 96. 10. 8 / 성신여대 2부관

다른 프로젝트와 비교해서 무엇이 다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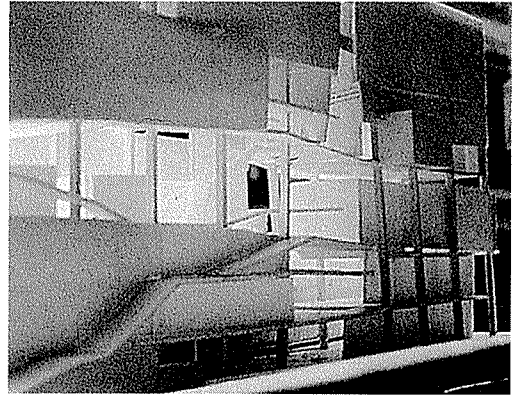
1. 프로그램의 재해석
2. 두 개의 조직원리

첫째는 그 건물 자체의 기능, 용도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전체 캠퍼스의 흐름에서 나오는 노매딕 시스템이다.

3. 이 두가지의 결합이 나의 originality



성신여대2부관(4층 초기안)



성신여대2부관 모형(내외부 공간의 연계성 스테디)

를 드러낸다는 관점보다는 내가 해석해낸 캠퍼스 기운이 반영됐다는 것이 읽혀질 때 가장 기쁠 것 같다.

즉 movement의 상대적인 차이로 인해 생기는 예기치 못한 결과로써 그 공간이 보다 더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 즉 내포되어 있는 그 가능성이 제대로 열려졌다고 확신될 때 그 장소는 나름대로 제대로 찾은 흔(장소성)을 지닐 수 있지 않을까 싶다.

4. 이것이 주요한 나의 건축적 목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그 장소에서도 유효할 것이고, 그 시대에서도 유효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축을 본다면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보는 관점은 한부분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즉, 사람의 의지라기 보다는 사람을 매체로 발현된 '어떤 원리의 의지' 여야 한다는 관점이 더 타당할 것이다.

문제는 그 '어떤 원리의 의지'가 잠재적으로 동일할 지 모르나 그것이 사람을 매개로 발현되는 순간 '변형' 된다는 점이다.

### 97. 6. 26 / Rhizomic Machine

계통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연속된 것이 아니다.

"계통수 구조는 그 요소들로 하여금 제한적이고 규칙적으로 연결하도록 만드는 위계적인, 성층화된 총체성들이다. Rhizomes은 하나의 통일된 구조내에 통합되지 않는 비위계적이고 수평적인 복수성(Multiple)이다. 그 요소들은 무작위적인, 비규칙적인 그물망을 형성하며, 이

그물망 안에서 어떤 요소이든 서로 연결될 수 있다."

- 들루즈 -

### 98. 8. 8 / 제주성의 문제 - 고유와 외래

고유와 외래에 관하여

- 갓 태어난 아기는 모든 것이 새롭다.

- 어른으로의 성장과정은 두려움과 자신감, 은둔과 호기심, 고립과 발견, 모험 사이를 넘나드는 끊임없는 작용의 연속이다.

- 한때 낯설던 것이 차츰 자신의 일부가 되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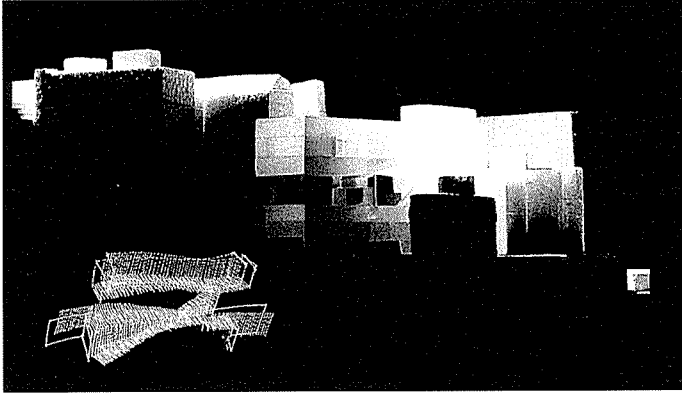
- 엄마의 젖가슴, 아빠 목소리, 방, 언어, 거리, 주위환경 등이 적당하게 소화되어 자신의 것이 되어가면서 점차 개인의 아이덴티티가 형성된다.

- 땅에는 울타리를 치고 개인의 영역은 담으로 둘러싸아 보호하므로 그 너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담안의 세계와 담밖의 미지의 신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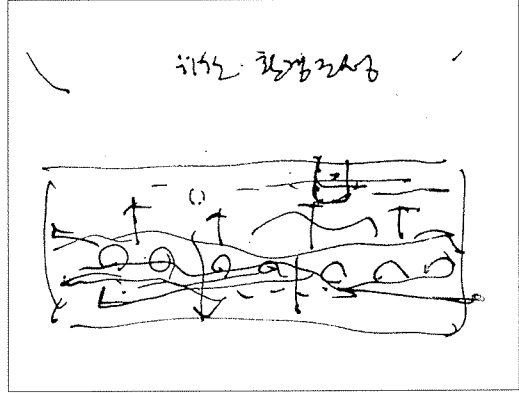
- 건축가로서의 피터 로렌쯔의 세계관 형성에 중요한 기반은 정체성(고유한 것 또는 외부로부터 유입)에 관한 것. 건축을 미학과 혼돈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좋은 건물이나, 흉한 건물이나로 성급히 판단하려 한다.

- '미' 라는 개념은 현상건축을 접근하는 데 적합치 않다. '좋다' 라는 것은 상당히 개인적인 판단기준으로 질서 정연할수록 좋다는 개념을 내포하는 것으로 조화와도 관계가 깊다. 건물에는 지적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기 다른 시대와 다른 사람에 의해 다르게 인식된다.

여기서 지적인 내용이란 교과서를 읽는 것



성신여대2부관(현상설계 당선모델)



성신여대2부관(프로그램 재해석에 따른 이미지 스케치)

과 마찬가지로 건물을 읽음으로써 이해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 98. 11. 11 / 창립기념일 새벽에

프로그램 재해석하고 콘텐츠를 고려해서 공간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결정요소들(design strategies)

### 1. 예측가능성과 불확정성

- Newton의 결정론적 세계관에서 불확정성적 세계관으로의 변환

- 신성적 가치 → 합리적 이성 (기계론적 결정론, 합리적 이성을 바탕으로)

→ 모순, 애매모호, 불확정성의 세계

### 2. 부조화와 강한 통합성 (Incongruity & intensive coherence)

- 이질성과 동질성 (Heterogeneity in homogeneity)

- 피카소 그림 (입체파적 Fragments)

- 종합적 콜라주 (synthetic collage)

- 뉴 모더니즘적 사고 = 모더니즘의 유토피아적 사고 + 포스트 모더니즘의 개별적 다양성에 의한 이질성 인정

### 3. 이벤트의 nomadic flow, Rhizomic network

- 현대사옥 옆길 : 단일한 한 길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 일어나는 여러 종류의 이벤트(등하교, 출퇴근, 시장과 같은 판매, 머뭇거림 등)도 이 길의 통합된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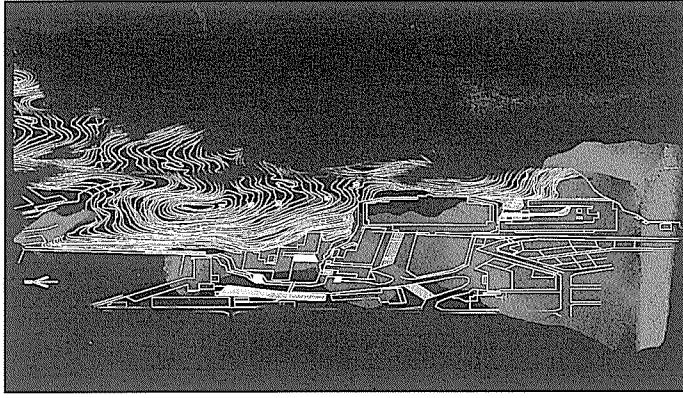
- 장기판의 공간과 그 적용원리, 바둑판의 공간과 그 적용원리 즉 장기알의 고정되고 부여된 역할에 따라 정해진 길에 따라 이루어지는 퍼포먼스보다는 바둑알은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그 각각이 혹은 그 전체가 왕이 되고 차가 되고 포가 될 수 있고, 그 퍼포먼스는 고정된게 아니라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그 무엇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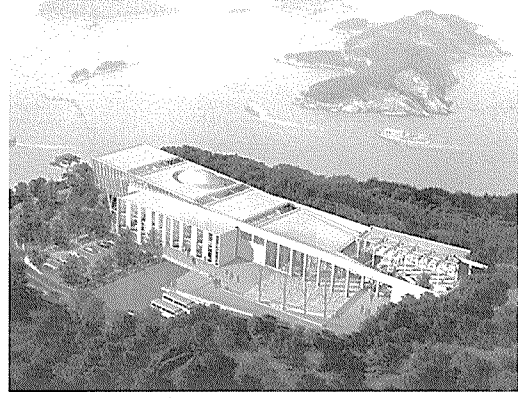
위 글들은 필자의 수첩에 단편적으로 기록된 글들이다.

지금보면 수궁하기 힘든 것부터 또 당시의 느낌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것까지 자연현상의 관찰에서부터 전시회라든지 아니면 누구의 말이든지 나에게 솔깃하게 다가온 글들이 아주 거칠게 여럿 있었다. 굳이 프로젝트와 관계되지 않은 글들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더 오래전부터 기록된 글을 내보인 까닭은 [작품노트]라는 성격 때문이라고 위안하고 싶은 것이 반이고, 또 반은 여기에 이렇게 적은 글들이 건축설계 과정에서 많은 부분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현재시점에 가까운 글들은 근래 4, 5년동안 한 설계에 거의 다 해당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디자인 과정에서부터 프로젝트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건축적 이념에 이르기까지, 특히 성신여대 2부관, 통영수산과학관, 백제역사민속박물관, 인천시립 화장장 등의 현상설계 프로젝트는 더 그렇다. 현상설계로 인해서 주어진 기능의 1차적인 만족 외에 건축적인 +α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성신여대 캠퍼스 마스터 플랜



통영수산과학관

다. 문제는 현상이 끝나고 건축주와 의견조정 과정에서 항상 야기된다. 어쨌든 무언가를 고치려하는(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기능상이든, 경제적이든, 맘에 안들든) 건축주와 가능하면 현상안 그대로 가져가려는 을(乙)의 실갱이가 시작된다. 나에게도 피해갈 재주는 별로 없었다.

성신여대의 경우는 그 위치가 여러 복합적 상황을 지니고 있었다. 소위 캠퍼스몰에 면해 있고 대지의 심한 고저차로 인해서 주변들과 연결의 문제가 중요했다. 그래서 그 연결시스템이 어떻게 엮이고, 또 2부관 시설자체와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느냐가 이 건물의 공간성격을 결정짓고, 또 그것이 바로 이 건물의 눈에 안보이는 장소성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래서 피로티에서 위로 강의실 영역이든지 아래의 식당 등으로 몇가지 연결장치를 한다. 일자형 계단, 이리저리 돌아가는 계단, 완만한 램프, 선큰가든 등. 직접 움직임이 생겨서 연결하는 장치에서부터 시각적 연결이 가능한 장치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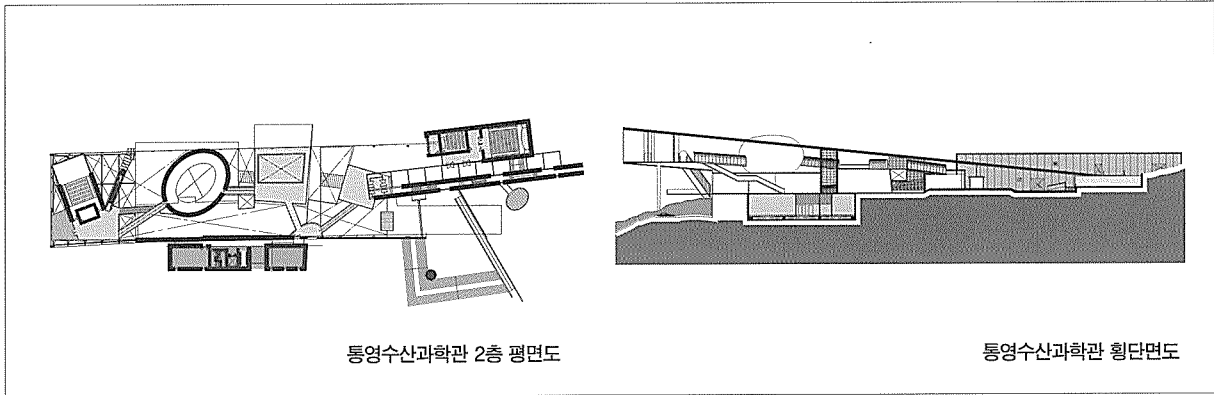
이 과정에서 재미있었던 얘기는 데모하는 학생들이(설계 당시 학생들의 데모로 총장실이 점거됐다) 뛰어내려 자해할 여지가 있는 모든 공간, 통로는 모조리 사전에 차단되었다. 그래서 피로티 있는 곳에서 식당으로 뚫린 선큰가든도 막아야 했고, 대학원 건물로 건너가는 연결 통로도 사방이 다 막힌 박스형태여야 했다. (나중에 현장에서 나의 느낌은 이것은 다행히 현재의 반투명 박스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었지만) 또 하나, 직통계단의 구조에 관한 것이다. 계단이란게 무엇인가. 수직으로 장소를 이동하면서 생길 수 있는 많은 가능성들이 거기에 있어준다면 장면이나 공간체험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물론 안전에 관한 피난이 고려되어야 한다.

피난이라는 이유 때문에 박스안에 갇혀있어야 함은 너무 소극적이다. 소방공무원 왈, 꼭대기에서 동전을 떨어뜨릴 때 그 틈으로 동전이 끝까지 내려갈 수 있어야 직통계단이라 나.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욕망의 흔적들이 많이 남았다. 준공 후, 모 선배 건축가에게 고백했다. 처음 설계의도대로 건물을 완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정말 부럽고 흔적들만 너무 남겼다고.

통영수산과학관의 경우 시작은 성신여대와 비슷하게 되었으나 설계 마무리는 원래의 의도들이 살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남은 공사과정에서 변수만 없다면 의도들이 끝까지 반영될 것이다. 현상 후 첫 브리핑 때 시장께서 맘에 안든다는 것이다. 한려수도 해상공원에서 보면 너무 돌출되어서 태풍이 불면 건물이 날아가니 안으로 쑥 집어넣어 캔티레버를 없애고, 3층으로 하면 어떠한 것이었다. (9m 캔티에 2층 건물이었다) 아! 그 실망감이란... 물론 현상설계 때 좀 무리를 해서 조형을 처리했고 바다쪽으로 돌출을 많이 시켰다. 왜냐하면 지침에 등대의 역할도 해달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실망한 것은 캔티가 줄어들고 안으로 집어넣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내부공간구조를 전부 변경해야 되는 것 때문이었다. 물론 이 내부구조가 캔티로 나온 것이고 연관이 있기도 했지만, 이 박물관의 내부공간은 중심과 부공간이 구분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비 위계적(nonhierarchical)인 공간, 마치 물고기떼가 움직일 때 보여주는 공간과 같이 그 사이들이 변하기도 하나 전체는 일관된 공간적 성격을 갖는 그런 공간을 의도하고 설계했기 때문이다. 정말 이 공간의 성격은 가져가고 싶었다. 그러나 당장 그 자리에서 팔자는 도저히 방법이 없었다.



통영수산과학관 2층 평면도

통영수산과학관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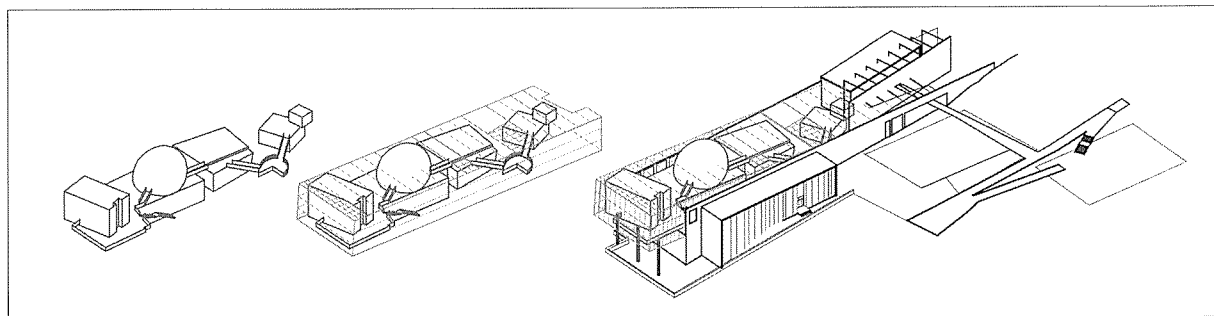
작전상 후퇴, 2주일인가 뒤에 비가 엄청오는 날 다시 브리핑을 했다. 여러 들러리들과 캔티를 좀 자르고 내부공간 구조는 현상안과 같은 그대로의 진짜와 함께... 성의를 많이 보일 수 밖에 없었다. 여러 가지 모형들과 함께, 내부공간에 대한 얘기도 있었다. 왜 빈 곳이 많은 것이다. 그래서 통영 앞바다의 다도해를 상징화해서 섬들을 기능실들 혹은 휴게실로 계획하고 그 사이를 연결다리로 건너가게 했다고 설명했다. 작전성공! 시장 왈 “내가 그때 좀 너무했지?” 이 한마디로 그 때부터 모든게 순조로왔다. 신뢰도 느낄 수 있었다. 실무진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현상때 미흡했던 옥외공간과의 관계도 많이 보완했다. 애정을 많이 쏟았다. 남은 것은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길 바라는 것 뿐이었다.

얼마전 모기자가 사석에서 “오소장님에게서 흐름이란게 뭐냐”라는 좀 직접적이고 솔직한 질문을 한 적이 있다. 공간과 이벤트에 관련된 얘기를 한 기억이 난다. 새삼 흐름이란 개념이 다시 나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단지 건축을 보는 차이로 인해서 형태나 공간이란 개념보다 더 중심에 와있는 게 아닌가 한다.

특히 현대에 와서는 건축물 자체가 도시와

의 관계에서 혹은 그 배경을 이루는 집단과의 관계를 빼놓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도시적 맥락에서 집단적 맥락에서 건축을 볼 때 하나하나의 형태는 - 도시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삶을 담는 장치로서 건축을 본다면 - 그 상대적 의미에서 볼 때 약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도시건축에서 일어나는 공공성(public event)은 다원화된 생활에서 볼 때 이질적이고 혼잡스러운 경향을 나타낸다. 그래서 팔자는 이러한 제 각각의 이벤트들이 모여서 한 장소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어느정도 동질성을 가질 수 있는 흐름이 일어나도록 하고 싶다는 얘기가.

현대사옥 옆길에서처럼 단일한 장소(길)에서 여러 종류의 행위들이 일어나 그 전체의 흐릿한 동질적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여러 다양한 공간적 구성을 통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이 성신여대 2부관이나 통영 수산과학관에 깔려있는 건축적 이슈였는데, 이들이 얼마나 이론적 실천의 결과로써 보여질지는 쉽지 않으나 당분간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작업하고 싶다. ▣



통영수산과학관 개념도